

순천시, 순천만 갯벌·해양자원 블루카본 가치 ↑

탄소흡수속도 그린카본 50배 “온실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

순천만 갯벌을 통해 매년 6900톤의 이산화탄소가 흡수·저장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매년 승용차 2900대 감축 효과에 해당된다.

바다, 갯벌, 염습지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인 블루카본(Blue Carbon)이 나무나 숲, 정원의 화초류, 잔디 등 육상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인 그린카본 보다 50배 이상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순천시에 따르면 해수부가 지난 2010년부터 전국 11개 지역에 갯벌 복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22년까지 폐염전, 폐양식장 등 1.5㎢를 복원했다. 이 중 순천만 역간척 사업을 통해 0.5㎢의 갯벌을 복원했으며 순천시는 2027년까지 2.1㎢ 갯벌 복원 계획을 추진 중이다.

순천시는 2021년 시행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갯벌법)’에 따라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갯벌 복원사업’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갯벌 복원 면적 1.5㎢를 2030년까지 1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순천시도 갯벌 복원 사업을 추진하며 갯벌 블루카본 잠재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만국가정원 모태인 연안습지순천만은 순천시가 보유한 경쟁력 있는 해양자원으로 앞으로 해양정원 조성, 역간척을 통한 갯벌 복원으로 탄소 흡수원 기반을 확대하고 순천만국가정원을 도심 곳곳으로 연결 확장하여 녹색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의 나아갈 방향을 보여 줄 계획이다.

순천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친환경 농축수산 인프라 조성 △탄소중립 생태사회 조성 등 분야별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그린카본, 블루카본 등 탄소흡수원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나선다 여수시 남산지구 50억 투입



여수시 대교동 남산지구가 살고 싶은 마을로 거듭날 예정이다.

29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대교동 남산지구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여수시는 2027년까지 5년간 국비 30억원 포함, 총 50억원을 투입해 주택·공동화장실 정비 등 생활 인프라 개선과 쉼터 조성, 근대유산복원,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에 나선다.

사업 선정으로 6·25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집단 거주했던 피난민촌으로 열악한 환경의 남산지구 정주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태양광 가로등 설치 및 마을지도 제작 등의 예비사업을 추진했으며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며 준비에 힘써왔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남산지구의 공모 선정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취약지역 생활환경과 경관 개선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산불예방·탄소중립 나무심기 장흥군새마을회

장흥군 새마을회가 관산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김승천·부녀회장 강해정) 50여명과 함께 산불예방,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나무심기를 실시했다.

관산읍 수동마을 쉼터공원과 인근 공휴지에 은행나무, 소나무, 철쭉, 체리나무 등 총 500주의 나무를 식재했다.

장흥군새마을회는 수동마을 공원에 수목 추가 식재를 통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쉼터로 조성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야 할 미래세대를 위하여 탄소중립 실천 나무심기를 실천하는 새마을지도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며 “지역의 환경보전과 마을환경 가꾸기를 위하여 항상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장흥군 새마을회가 지난 28일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산불예방,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나무심기를 실시했다. 장흥군 새마을회 제공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 운영 순천시, 주거취약계층 대상



순천시는 순천대학교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사업을 알리고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찾아가 정보제공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상담서비스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청년월세 지원 등 주거복지서비스와 공공임대주택 사업, 위기가구 지원 등 상담을 진행하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시정소식도 함께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로 1220가구가 주거복지 서비스를 신청했고 신청대상 가구 중 63%인 763가구가 월세 지원 등 주거급여 혜택을 받았다.

매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에서 노인복지회관, 대학교, 순천역 등을 직접 찾아가 주거복지 이동상담소를 운영, 시민들이 주거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세적 주거복지 체감시책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는 1:1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로서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서울대, 백운산 임도 무분별 개설 추진 안돼”

광양백운산지킴이협 등 회견

“서울대는 당장 이익·편리만 추구하면서 백운산 생태계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광양백운산지킴이협회와 백운산국립공원지정추진준비위원회는 29일 광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대 백운산 임도 개설 추진에 반대 견해를 밝혔다.

협회의는 성명서를 내고 “서울대는 그동안 산허리를 동강 내는 임도를 개설하며 대규모 산림을 파괴하고 백운산 생태계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백운산에는 2011년까지 서울대가 수행한 38km 임도가 있고 2012년 이후 산림청 국비 지원을 받아 15km가 개설됐다.



서울대는 올해 18억 원 예산을 들여 봉강 신룡지구와 다담 금천지구에 임도 7km 신설을 추진 중이다. 옥룡 동곡 산 136번지와 추산리 114번지에 3.8km 국유 임도를 개설하기 위한 타당성 평가를 준비 중이다.

협회의는 “서울대와 광양시는 대형 산불 대응과 임산물 운반로 구축 등 임도 개설 이유를 대고 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백운산 생태적 가치는 당장의 이익

과 편리만으로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의 관계자는 “10년 전 광양시민 8만3000명이 서명하면서 백운산을 국유림으로 지켜내고 국립공원 지정이란 방향을 세운 결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협회의는 “광양시도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과 함께 난개발 방지에 대해 시민의 요구를 갖지 않도록 백운산 생태계 보호 의지를 민선 8기 핵심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무분별한 임도 개발계획이 중단되지 않고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 백운산의 보존 방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산속 임도개설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고향사랑기부’로 계속 보성군-제주도의회 예결위



보성군은 지난 28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체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확산시키고 보성군과 교류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의정 역량을 강화코자 마련됐다.

보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과 타 지자체 및 의회와 협력을 다지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했다.

기부금은 보성군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증진에 활용될 계획이다.

양경호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향·의향·다향으로 유명한 보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숙박 및 체험, 반려용품 만들기(DIY), 별초대형 서비스 등의 이색 상품을 포함해 총 98개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장흥군, 미래세대 청년 파격 지원 나섰다

전입청년 희망 주거비 등

장흥군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 일부를 지원하는 장흥형 전입청년 희망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희망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장흥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8일 이후 새로 전입 신고한 만19세 이상 49세 이하 무주택 청

년세대다.

지원자격은 전용면적 85㎡이하 월세 또는 전세로 거주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돼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부터 2년까지 30만원, 3년부터 4년까지 20만원, 5년까지 10만원의 월 주거비를 지원받으며 최대 5년까지 13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주택소유자, 신청일 기준 확정일자가 6개월 미만

인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정책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희망 주거비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장흥군으로 전입하고 월세 또는 전세 확정일자를 6개월 이상 받은 후 6개월 되는 날부터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사 및 선정 확인 절차를 거쳐 선정자에게 지급한다.

김성 장흥군수는 “전입청년 희망주거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미래세대 청년들의 주거비 경제적부담을 완화하여 장흥군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의 생활안정 및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